

구한말 민족교육 구심점 '영주정사'·'영학숙' 조명

〈정읍 흑암동〉

〈전남 창평〉

호남 부호 자제들 교류하며 민족운동 전개...정읍시 내달 7일 학술대회

구한말 민족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정읍에서 열린다.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는 오는 8월 7일 오후 1시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 근대사에서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역사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향토사연구학회연합회 부이사장과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재영 박사의 '호남 인재의 산실, 영주정사와 영학숙'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향토사학자 이진우 선생의 '고부의 근대유학과 영주정사', 한국학호남진흥원 권수용 박사의 '창암 박만환과 영주정사',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원 김상욱 박사의 '춘강 고경주의 근대 교육기관 설립 운동'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전북교육문화연구소 정원기 선생은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한말-일제강점기 영주정사 출신 인사들의 활동'이란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읍 흑암동의 '영주정사'는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제21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 창평의 '영학숙'은 전남 민속문화재 제42호로 등록돼 있다.

'영주정사'가 호남지역 구학문을 대표하는 곳이라면, '영학숙'은 근대학문을 대표하는 곳으로 이 두 곳은 호남지역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됐다.

호남 부호의 자제들이 이 두 교육기관을 통해 교류하고 인맥을 형성하면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이에 대한 의의를 되짚어보고 조명하는 학술대회는 아직까지 전무했다.

정읍역사문화연구소는 '영주정사'와 '영학숙'의 민족운동과 그 역사적 의미를 조명해 정읍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



구한말 민족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정읍시 흑암동의 영주정사.

〈정읍시 제공〉

지로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영주정사와 영학숙에 대한 첫 학술대회인 만큼 지역사와 지

역 문화사, 한국 민족 운동사에 관심있는 시민과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고창군 경관농업 특구 연장

고창군이 청보리와 유채꽃 등 경관농업 특구 연장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 경관농업특구 계획변경 용역 중간보고회'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관농업특구 연장을 위한 특화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005년부터 경관농업특구를 지정해 확립농장 주변 25만평의 청보리밭과 인근 50여만평의 경작지에서 친환경농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구 지정을 통해 경관농업지구의 확대기반 조성과 보리밭, 유채꽃 등 자연경관을 관광상품화하면서 농업소득 기반이 다양화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특구를 청보리밭 인근에 한정치 말고 고창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계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창군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정리해 최종보고서에 담고, 특구 연장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으로 특구 연장 등을 통해 이를 더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체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행락지·위생업소 방역 점검

남원시 내달 16일까지

남원시가 주요 행락지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방역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기간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산내면 뱀사골계곡과 달궁계곡을 중심으로 한 이동도로에 현수막을 걸어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사항 준수도 당부한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 공기 '매우 깨끗해요'

강천산 등 유해물질,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아...공기 산업화 탄력

순창군의 공기가 매우 깨끗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창군은 지난 5월 12, 13일 치유·힐링의 명소인 '실랜드'와 강천산 일대의 공기를 종합시험인 증기관인 하동 바이탈라티에어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서울대학교 NICEM 실내환경분석센터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측정했다.

2개월에 걸친 분석 결과, 순창의 공기 오염도는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프름알데히드, 총탄화수소, 피톤치드 등 10여가지 검사항목에서 모두 대기환경 오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산소는 기준치인 20~22% 중 21%로 적합했으며 이산화탄소는 기준치 1000ppm에 377ppm, 일산화탄소는 기준치 25ppm이하에 0.013ppm, 이산화질소

는 기준치 0.1ppm이하에 0.016ppm 등으로 나왔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총탄화수소는 오염기준인 25ppm을 한참 밑도는 3.86ppm이 검출됐고, 흡입 시 두통과 현기증을 일으키며 신경계 장애 및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오염기준인 400ug/m³보다 현저히 낮은 25ug/m³이 검출돼 공기 질이 매우 좋음을 나타냈다.

반대로 공기에서 생리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진 알파피넨 등 8개의 피톤치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군은 이번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기를 산업화하고자 했던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황승주 순창군수는 "순창은 예로부터 섬진강이



순창 강천산 산림욕장을 찾은 한 가족이 숲길을 걷고 있다.

〈순창군 제공〉

호남정맥의 준봉 사이를 관통해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이름난 곳"이라며 "깨끗한 물이 최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으로 각광받는 것처럼 머지

않은 미래에 순창의 청정한 공기가 최고의 자원이 되고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익산시, 무주택 청년 무이자 대출 지원 호응

최대 1억원 2년 만기 일시 상환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3.0%를 지원한다. 최근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2%대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전

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올해 예산 3억 원을 투입, 지금까지 44가구를 선정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혼인 대학생·취업 준비생 등은 부모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미혼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 청년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니 빨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학습격차 줄이고 대학생 일자리 만들고

군산시, 아동센터 등에 멘토 파견

군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 일자리사업(대학생 공공일 급터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지난 26일부터 8월25일까지 4주간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학생 55명을 파견해 초·중학생의 학습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대학생들은 주중 하루 4시간씩 지역 내 20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05명의 아동을 전담해 학습지원은 물론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대학생 공공일급터사업은 군산소재 대학 재학생, 군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산 출신이지만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방학 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여름·겨울방학으로 나눠 2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 여름방학에 선발된 대학생 136명 중 아동학습지원에 배치된 인원을 제외한 81명은 코로나 생활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원업무 등 공공행정 분야에 배치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